

대학생과 노인의 지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 소 연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지혜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라 다양한 삶의 딜레마 상황에서 주인공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떤 판단을 하는지, 아울러 개방성과 자기초월이 지혜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핌으로써 지혜의 기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지혜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절제와 균형 요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자기초월점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딜레마 상황에서 노인들은 대학생에 비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상황 속 인물들에게 있는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하였고 그 인물들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도 적게 보고하였다. 각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에 대한 판단에서도 노인집단과 대학생집단은 차이가 있었다. 노인과 대학생 모두 지혜는 자기초월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개방성은 노인의 지혜와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노인의 경우에는 연령과 지혜 간에 상관이 없었으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혜점수가 더 높아 노인과 대학생간에 차이를 보였다.

주요어: 지혜, 개방성, 자기초월, 대학생, 노인

‘지혜’ 개념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심리학자들의 흥미를 끌게 된 것은 1980년대에 전생애 발달 관점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부터이다(Baltes, Dittmann-Kohli, & Dixon, 1984; Baltes & Smith, 1990; Clayton & Birren, 1980). 지혜는 나이가 들어도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영

역이고, 성공적인 발달의 많은 측면들과 관련된 자질로(Assmann, 1994; Baltes & Staudinger, 2000), 긍정심리학 분야가 성장하면서 이상적인 강점으로 주목받고 있다(Aspinwall & Staudinger, 2003;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Snyder & Lopez, 2007).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303)

* 교신저자: 정영숙, E-mail: yschong@pusan.ac.kr

지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최근에 등장하게 된 것에는 지혜에 관한 일치된 정의가 어렵다는 것이 바탕에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은 지혜의 정의를 내리고 지혜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혜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크게 개인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지혜 개념, 개인의 성격발달과 연계시키는 지혜 개념, 그리고 인지적·성격적 측면을 포함하여 많은 영역들이 통합된 다차원적 지혜 개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지혜를 지능의 확장된 형태로 보고 지혜에 근접하는 지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식들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흐름의 연구는 독일 베를린의 Max Planck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를린 팀은 지혜를 ‘근본적인 인간사 영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체계(Baltes & Smith, 1990)’와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인간사에 대한 좋은 판단과 충고(Baltes & Staudinger, 1993)’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사라는 것은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해결법은 다양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의미한다. 지혜의 인지적 관점을 따르는 Sternberg (2003)는 지혜의 기반을 지능과 창의성에 두고 있는데, Sternberg는 지혜를 ‘개인내·개인간 그리고 초개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짧은 기간이나 긴 기간에 걸쳐 기존의 환경에 적응하거나 기존의 환경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어 공동선을 획득하기 위한 성공적 지능과 창의성의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생애적 인지발달 개념에서는 지혜를 변증법적 사고가 출현하는 ‘후형식적 사고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Kramer, 1990; Labouvie-Vief, 1990). 형식적 사고 이후 나타나는 변증법적 사고는 계속되는 통

합의 과정으로 자기,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찰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자들도 지능이나 지식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들만으로는 지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근에는 통합된 관점으로 지혜를 개념화하고 있다(Kunzmann & Baltes, 2003; Kramer, 2000).

개인의 성격발달의 결과로 지혜를 개념화하는 연구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에 주목하면서 높은 수준의 자아발달과 자아초월(Orwoll & Perlmutter, 1990)을 지혜의 핵심적 지표로 간주한다. 이 속성은 자기 중심의 사고와 감정에 몰두하는 대신에 그것을 넘어 자기, 타인,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는 고도로 통합적이고 성숙한 성격 구조를 의미한다(Orwoll & Perlmutter, 1990). 전생애 발달이론을 제안한 Erikson(1959)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는 위기의 해결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보았는데, 지혜는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여 통합과 절망 사이의 균형을 발견하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과제가 된다. Jung(1953) 역시 지혜의 원천을 자기의 더 깊은 측면들을 마주하는 데서 찾는다. 개인화라 부르는 이 과정은 개인의 무의식에 접근하여 내부와 외부 현실, 선과 악,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대립되는 면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지혜에 접근하게 된다. 성격이론가들에 따르면, 지혜에는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과 심리적 성장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통합된 성격 특성들이 나타나야 한다(Orwoll & Perlmutter, 1990).

연구자들마다 강조하는 측면은 다르지만 최근의 지혜 연구자들은 지혜가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구성개념으로서 인지적, 성격적 측면뿐 아니라 많은 영역들이 통합된 개념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지혜를 성격, 인지, 정서, 능동적인

행동 등의 차원들이 교차하는 지점으로(Kramer, 2000; Labouvie-vief, 1990; Pascual-Leone, 1990), 또는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차원들이 종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간주한다(Ardelt, 2004; Clayton & Birren, 1980). Ardelt(2004)에 따르면, 지혜의 인지적 차원은 개인내적 혹은 개인 간 문제에서 사건의 중요하고 깊은 의미의 이해를 통해 삶을 이해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지혜의 반성적 차원은 자기 검토와 자기통찰을 통해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혜의 정서적 차원은 개인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향상시키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혜에 관한 다양한 모델과 정의가 존재하지만 그들이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의 여러 연구자들은 지혜를 시간이 흐르면서 통합되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들로 구성된 다차원적 구성 개념으로 규정하는 편이다. 이러한 통합은 반대되는 자기도식들을 통합하고 나와 타인 사이의 경험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Kramer, 2000). 본 연구에서는 지혜의 다차원적 속성을 강조한 김민희(2008)의 정의를 따라 지혜를 ‘인지적, 정신적-종교적, 도덕적-윤리적, 관계적-사회적 요소의 균형적 통합을 통해 삶의 장면에서 드러나는 문제해결 역량’으로 간주한다.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정의적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라는 경험적 문제와 연결된다. 서구 연구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사고, 감정, 행동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Kramer, 1990; Orwoll & Perlmutter, 1990), 감정이입능력과 동정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Helson & Wink, 1997).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성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건

모두에서 의미를 발견할 줄 알고,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 범위가 넓었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성장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yster, 1996).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가에 대한 판단은 문화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구에서 지혜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도구들이 만들어졌지만(Ardelt, 2003; Webster, 2003) 이는 서양의 지혜 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에 김민희(2008)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혜와 관련된 특질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한국인의 지혜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김민희(2008)는 지혜에 관한 문헌들을 개관한 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전반에서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 간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기 이익과 타인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여, 인생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려와 공감에 기반을 두어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김민희(2008)는 인지적 역량, 절제와 균형, 긍정적 인생 태도, 그리고 공감적 대인관계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지혜 척도를 개발하였다.

지혜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지혜와 관련된 성격특성들도 연구되었다. 개인의 성격특성 중 지혜를 가장 잘 예측해주는 특성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었다(Bacelar, 1998; Lyster, 1996; Staudinger, Lopez, & Baltes, 1997). 일반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일 것으로 보고하였으며(Clayton & Birren, 1980; Holliday & Chandler, 1986),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들은 가상적인 삶의 딜레마 상황에 대해 지혜와 관련된 지식 혹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udinger et al., 1997; Staudinger, Maciel, Smith, & Baltes, 1998). 특히 개방성은 청소년들의 지혜 관련 수행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udinger & Pasupathi, 2003). 지혜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에는 지혜 개념에 포함된 인지적 유연성과 조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신념, 생각 등의 변화와 같은 요소들이 개방성에도 해당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Clayton & Birren, 1980).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경험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친밀한 사람들과 보다 집중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도 있다(Carstensen, 1998). 따라서 나이에 따른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지혜 간의 관계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주제일 것이다.

지혜와 관련된 성격개념으로 자기초월 능력도 제안되고 있다. 성인 발달 이론가들은 자아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라고 보았는데(Labouvie-Vief, 1990; Orwoll & Perlmutter, 1990), 자아발달을 이루려면 먼저 개인이 원하지 않는 자신의 성격특성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 자기에게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것이다(Helson & Wink, 1997). 이와 같은 자기검토와 자기자각은 자기중심성을 약화시키게 되고 자기, 타인, 세계, 자연에 대한 더 큰 직관과 공감적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Ardelt, 2004). 자기를 초월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동적 사고, 감정, 행동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경험에 감정이입함으로써 타인과 연결되는 것이다(Pascual-Leone, 1990). 또한 자신의 견해, 관점, 진실 등에 대한 애착이 감소하고, 이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포함하여 타인을 향한 돌봄, 연민, 관심이 확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Levenson, Jennings, Aldwin, & Shiraishi, 2005). 자기초월이 지혜의 핵심지표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은 지혜가

개인 중심의 관점을 넘어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들로 나아가는 자기초월 능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Orwoll & Perlmutter, 1990). 자기초월을 중시하는 입장은 지혜를 전문적인 지식체계로 개념화하는 입장(Baltes & Smith, 1990)에 대한 보완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Chandler & Holliday, 1990; Levenson, Jennings, Le, & Aldwin, 2002).

Le(2004)는 문헌개관과 비교문화연구를 통하여 서양에서는 삶에서의 올바르게 훌륭한 판단과 관련된 실용적 지혜를 강조하고, 동양에서는 초월적 지혜를 강조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자기초월은 동양의 지혜개념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으로 지혜로운 한국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일 것이다. 국내 연구 중 자기초월과 지혜와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김민희(2008)의 연구가 유일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초월척도를 사용하여 노인의 자기초월만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노인을 비교할 수 있는 성인자기초월척도를 사용하여 연령에 따른 지혜와 자기초월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노인기의 장점으로 지혜의 역할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삶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혜는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결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들과 늘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들 간에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나 직업을 결정하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다. 여러 학자들은 실생활의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특히 실용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발휘되는 것이 지혜라고 제안하고 있다(Clayton, 1982; Dixon & Baltes, 1986; Kekes, 1983).

지혜는 삶의 상황과 인간사에 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사려 깊은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Kramer, 2000). 지혜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고 조언하는 문제해결능력도 포함된다(Baltes & Smith, 1990; Kramer, 1990). Kramer(2000)는 성인기 삶에서 지혜가 수행하는 다섯 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혜는 개인의 삶에서 딜레마를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Dittmann-Kohli & Baltes, 1990). 둘째,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조언을 주는 것으로, 조언은 지혜의 원형 개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Holliday & Chandler, 1986; Sternberg, 1985). 셋째, 지혜는 사회를 관리하고 인도하는 것으로, 특히 나이가 들면서 지혜의 이런 측면이 활발해진다. Schaie(1977-1978)의 가설에 따르면, 중년기와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인지 기능은 이미 획득한 지식들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것인 반면에 청년기에 적합한 인지기능은 새로운 지식의 획득이다. 네 번째 기능은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함으로써 의미와 연속성을 획득하는 노년기의 과제에 부합하는 것이다(Erikson, 1968). 지혜의 다섯 번째 기능은 삶의 의미를 묻는 것으로, 주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지혜 개념을 통해 대변되어 온 기능이다(Dittmann-Kohli & Baltes, 1990; Moody, 1983).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지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그 기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지혜와 관련된 발달적 관심의 하나는 지혜와 나이에 관한 것이다. 지혜와 나이에 관한 주된 논란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가 하는 것이다. 삶의 경험이 지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혜가 발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나(Ardelt, 2000; Baltes & Smith, 1990; Kekes, 1983), 광범위한 삶의 경험과 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지혜의 발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Holliday & Chandler, 1986)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을 했을 노인들이 더 지혜로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과 일치한다(Heckhausen, Dixon, & Baltes, 1989). 젊은 사람들과 나이가 든 사람들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혜로워질 것이라 믿고 있다는 결과나(Denney, Dew, & Kroupa, 1995; Heckhausen, Dixon, & Baltes, 1989), 지혜로운 인물을 선정해 보라고 했을 때 모든 연령집단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인물들을 선정하는 결과(Orwoll & Perlmutter, 1990)는 지혜가 나이의 산물일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지혜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혜는 나이 들과 연관된 요소임을 짐작케 한다(권유경, 1996; 김민희, 2008; 성기월, 이신영, 박중환, 2010; 이수림, 조성호, 2007; Baltes, Smith, & Staudinger, 1992).

이와는 달리 Meacham(1983)은 지혜의 핵심이 되는 ‘지혜의 질’ 또는 ‘지혜의 깊이’는 연령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연구들은 지혜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는데(Baltes & Staudinger, 1995; Smith & Baltes, 1990; Staudinger, Smith, & Baltes, 1992), 이는 지혜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혜와 나이에 관한 관련성도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이수림, 조성호, 2007).

연령과 지혜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을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삶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반성, 자기검토, 자기인식을 하고 주관성으로부터 초월할 시간을 더 많이 가졌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Labouvie-Vief, DeVoe, & Bulka, 1989)과 반성적 판단(Kitchener & Brenner, 1990)이 성인기동안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나이 들어가는 것과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Grossmann, Na, Varnum, Park, Kitayama, & Nisbett, 2010). 그러나 노인들 중에서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님에 틀림없다(Assmann, 1994; Baltes & Staudinger, 2000; Dittmann-Kohli & Baltes, 1990).

지혜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아직 초창기인 현실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지혜의 수준과 그에 따른 지혜의 기능을 탐색하는 것은 지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인지적 능력과 지혜의 특성에서 연령 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적 능력은 줄어들지만 지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도 있고(Staudinger, 1999), 청년기가 지혜의 획득시기라는 결과도 있다(Pasupathi, Staudinger, & Baltes, 1999). 본 연구에서는 지혜개념의 중요한 차원 중 하나인 인지적인 측면의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들과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지혜 정도와 그에 따른 삶의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성으로 거론되는 개방성과 자기초월이 지혜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핌으로써 지혜의 기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노인과 대학생은 지혜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인과 대학생이 삶의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지혜는 개방성이나 자기초월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부산대학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74명과 부산 소재 복지관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면접을 허락하신 65세에서 85세 노인 56명이 참여하였다.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0.7세(표준편차 1.48)이었고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9세(표준편차 5.39)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중 남자 대학생은 32명(43.2%), 여자 대학생은 42명(56.8%)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 중 남성노인은 27명(48.2%), 여성노인은 29명(51.8%)이었다. 노인들의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2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졸(21.4%)과 중졸(17.9%)이었다.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노인과 대학생 모두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대학생 45.9%, 노인 69.6%). 주관적인 건강수준에서는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았고(54.0%), 노인들은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7.5%).

측정도구

지혜 대학생과 노인의 지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민희(2008)가 개발한 '한국인의 지혜척도(KMW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3개 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하위요인은 인지적 역량, 절제와 균형, 긍정적 인생태도, 그리고 공감적 대인관계이다. 하위요인 중 인지적 역량 요인은 16문항으로, 인지적 역량, 통

찰, 문제해결 능력 등과 관련된 것을 측정하는데, '나는 정확하고 빠른 상황 판단을 내린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절제와 균형 요인은 11문항으로, 삶에서의 절제, 평정, 균형 등과 관련된 것을 측정하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긍정적 인생태도 요인은 10문항으로, 긍정적인 인생 가치관, 인생 향유 등과 관련된 것을 측정하는데, '나는 항상 자기계발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은 6문항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 대인관계 너그름과 같은 것을 측정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자신과 일치되는 정도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지혜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지혜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인지적 역량 .90, 절제와 균형 .90, 긍정적 인생태도 .78, 공감적 대인관계 .86이었다.

삶의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 여러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지혜의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 Kwon(1995)의 인생위기에 대한 지혜와 관련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 중 4가지 상황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척도에서는 Kwon의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신문과 잡지에서 선별한 삶의 12가지 위기상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생활영역(가정, 직장)과 주인공의 연령층(청년, 노년)의 문제들을 대표하는 4가지 상황을 사용하였다(표 1참조). 설문을 실시할 때 상황의 순서를 균형화 하여 제시하였다.

4가지 딜레마 상황을 각각 제시한 후, 응답자들에게 각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

표 1. 지혜기능 탐색을 위해 사용된 상황 종류

내 용	
상황1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된 여학생
상황2	부도난 남편을 돕기 위해 자신의 가게를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아내
상황3	아들을 의사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밑에서 적성에 맞지 않는 의사 대신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아들
상황4	부정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하였으나 막내딸의 결혼식이 걱정되는 남편

이 당사자들에게 각각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10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 상황에서 각각 어떤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단어를 선택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단어는 15개이었다(확신이 없는, 막막한, 절망스러운, 화나는, 우울한, 슬픈, 미안한, 걱정스러운, 불안한, 두려운, 초조한, 후회스러운, 놀라운, 당혹스러운, 좌절스러운). 끝으로 예비연구의 개방형 응답을 기초로 하여 얻어진 여러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그 방안들이 각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10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예비연구는 본 연구에 앞서 대학생 121명(남자 39명, 여자 82명, 평균연령 22.6세)과 중년성인 24명(남자 9명, 여자 15명, 평균연령 58.3세)을 대상으로 김민희(2008)의 '한국인의 지혜척도'와 Kwon(1995)의 인생위기에 대한 판단 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예비연구는 Kwon(1995)의 질문이 지혜 정도에 따른 판단의 차이를 탐색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인지, 또는 보완되어야 할 질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예비연구에서는 주어진 각 상황에 대해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인지를 자유응답형으로

질문하여, 각 상황에서의 적절한 해결방안으로 응답된 내용을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 다양한 해결방안들로 제시하였다.

개방성 대학생과 노인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하고 개정한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는 NEO-PI-R를 안창규와 채준호(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5요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개방성’은 다양성과 변화, 지적인 자극 등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개방성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새로운 음식이나 외국 음식을 종종 먹어 보려고 한다’, ‘윤리 도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방성에 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64이었다.

자기초월 대학생과 노인의 자기초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evenson, Jennings, Aldwin와 Shiraiishi (2005)의 성인자기초월척도(Adult Self-Transcendence Inventory; ASTI)를 발달심리전공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함께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보다 넓은 연령 범위에 걸쳐 초월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Tomstam(1994)의 노년초월(gerotranscendence) 개념을 근거로 하여 개발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성인자기초월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 전의 자신과 비교하여 각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점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자기초월 척도에는 ‘예전에 비해 마음이 평화롭다.’, ‘이전 세대와도 미래 세대와도 일체감을 느낀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초월점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연구절차

대학생들은 사전에 실험참가서에 약속한 시간에 10명씩 소집단으로 실험실에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였다. 노인은 일대일 면접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요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질문에 대한 답만 한 노인은 면접이 빨리 끝났으나 각 상황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함께 한 노인은 면접이 오래 걸렸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과 노인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지급되었다.

결 과

대학생과 노인의 지혜, 개방성 및 자기초월 비교

대학생과 노인의 지혜점수,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자기초월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노인집단이 대학생집단보다 전체 지혜점수($t(128)=-7.33, p < .001$)와 자기초월 점수($t(128)=-9.35, p < .00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혜척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노인은 대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인지적 역량: $t(128)=-2.34, p < .05$, 절제와 균형: $t(128)=-12.54, p < .001$, 긍정적 인생태도: $t(128)=-4.62, p < .001$, 공감적 대인관계: $t(128)=-7.93, p < .001$), 특히 절제와 균형 요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t(128)=-12.54, p < .001$). 대학생과 노인의 남녀별 비교를 보면,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전체 지혜 점수가

표 2. 대학생과 노인의 지혜, 개방성 및 자기초월 점수의 평균 비교

	대학생 (N=74)	노인 (N=56)	t
지혜(전체)	3.41(.39)	4.05(.55)	-7.33***
인지적 역량	3.39(.52)	3.67(.77)	-2.34*
절제와 균형	3.07(.54)	4.28(.55)	-12.54***
긍정적인생태도	3.63(.52)	4.10(.62)	-4.62***
공감적대인관계	3.77(.58)	4.57(.56)	-7.93***
개방성	3.43(.53)	3.31(.59)	1.22
자기초월	2.68(.31)	3.39(.50)	-9.35***

* $p < .05$, *** $p < .001$

높았는데($t(128)=2.24, p < .05$), 하위요인 중 인지적 역량 요인에서 더 높았다($t(128)=2.50, p < .05$). 남자노인과 여자노인들은 전체 지혜점수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요인 중 절제와 균형요인($t(128)=-2.19, p < .05$)과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t(128)=-2.83, p < .01$)에서 여자노인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대학생과 노인의 상황에 대한 판단의 차이 비교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 자료를 합쳐 분석하였다. 지혜 점수가 높은 노인집단과 지혜 점수가 낮은 대학생집단이 삶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즉 각자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각자가 느끼는 정서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문제해결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그 결과를 정리하여 상황별로 표 3, 표 4, 표 5, 그리고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된 여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관해 고민하는 상황(표 3 참조)에서 여학생과 남자친구 각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문제의 원인)를 비교해 보

면, 대학생이 노인에 비해 여학생과 남자친구 모두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여학생: $t(128)=5.11, p < .001$, 남자친구: $t(128)=4.96, p < .001$). 또한 임신한 여학생과 남자친구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반응에서도 대학생들이 노인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여학생: $t(128)=3.14, p < .01$, 남자친구: $t(128)=3.71, p < .001$). 달리 말하면,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현 상황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덜 돌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도 더 적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신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6가지 방안들 중에서 대학생은 노인에 비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것($t(128)=3.52, p < .01$)과 아이를 낳은 후에 입양시키는 방안($t(128)=4.33, p < .001$)을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상황 1에 대한 문제 원인, 정서 반응, 해결 방안 판단 차이

	대학생 (N=74)	노인 (N=56)	t
문제의 원인 ^a			
여학생	7.27(1.94)	5.45(2.11)	5.11***
남자친구	7.31(2.02)	5.48(2.17)	4.96***
부정적 정서반응 ^b			
여학생	6.22(2.37)	4.64(3.35)	3.14**
남자친구	5.93(2.60)	4.02(3.29)	3.71***
각 방안들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판단 ^c			
결혼 후 출산	7.00(1.82)	8.29(2.11)	-2.81**
임신중절수술	4.46(2.40)	2.80(2.97)	3.52**
부모님 조인	6.78(2.12)	8.11(2.58)	-3.21**
현실·장래고려	7.31(2.28)	6.96(3.45)	.65
서로의진심제고	5.59(2.89)	6.68(3.62)	-1.84
출산 후 입양	2.99(2.06)	1.61(1.57)	4.33***

** $p < .01$, *** $p < .001$

^a 상황 속 문제의 원인이 인물에게 있는 정도를 1에서 10점까지 판단하도록 하였음.

^b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15개의 부정적 정서 단어 중 선택하도록 하였음.

^c 각 해결방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1에서 10점까지 판단하도록 하였음.

반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t(128)=-2.81, p < .01$)과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t(128)=-3.21, p < .01$)은 대학생보다 노인이 더 좋은 해결책으로 판단하였다. 임신중절과 아이입양이 여대생과 남자 친구를 위한 방안이라면, 부모와 의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아이와 부모까지도 생각하는 방안이 된다.

부도난 남편을 돕기 위해 자신의 가게를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아내의 상황(표 4참조)에서는, 주로 남편 탓으로 보고 있지만, 대학생은 노인에 비해 아내에게 더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고($t(128)=3.55, p < .01$),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남편에게 그 원인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t(128)=-3.20, p < .01$). 정서반응에서는 대학생이 노인에 비해 부도난 남편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나($t(128)=3.44, p < .01$), 아내의 정서반응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 상황 2에 대한 문제 원인, 정서 반응, 해결 방안 판단 차이

	대학생 (N=74)	노인 (N=56)	t
문제의 원인			
아내	2.89(1.56)	1.88(1.70)	3.55**
남편	5.82(2.53)	7.50(3.25)	-3.20**
부정적 정서반응			
아내	4.84(2.34)	4.59(3.35)	.48
남편	6.09(3.27)	4.27(2.60)	3.44**
각 방안들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판단 차이			
가게처분	6.47(2.25)	4.32(3.47)	4.04***
가계계속운영	4.89(2.36)	5.48(3.65)	-1.05
내버려둠	2.58(2.14)	2.80(3.09)	-.46
대출제공	5.53(2.48)	3.05(2.75)	5.37***
이혼	1.78(1.48)	1.50(1.70)	1.02
남편의견 따름	5.18(2.33)	4.68(3.12)	1.00

** $p < .01$, *** $p < .001$

표 5. 상황 3에 대한 문제 원인, 정서 반응, 해결 방안 판단 차이

	대학생 (N=74)	노인 (N=56)	t
문제의 원인			
아들	4.70(2.13)	3.75(2.51)	2.29*
아버지	7.01(1.84)	5.55(2.93)	3.27**
부정적 정서반응			
아들	4.34(2.01)	3.13(2.51)	3.06**
아버지	3.93(1.75)	3.54(2.17)	1.12
각 방안들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판단			
독립(가출)	4.30(2.14)	4.55(3.24)	-.51
대화	8.05(1.77)	6.45(3.51)	3.14**
두 가지 모두하기	6.11(2.66)	2.63(2.88)	7.14**
아버지 설득	7.42(2.11)	7.07(3.22)	.70
연기계속하기	2.84(1.70)	1.88(2.05)	2.93**
아버지의 뜻 따름	2.51(1.71)	3.77(3.49)	-2.48*

* $p < .05$, ** $p < .01$, *** $p < .001$

부도 상황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들 중에는 가게를 처분하는 것과 대출받아 돕는 것에서 연령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이 노인에 비해 가게를 처분하여 돕는 것($t(128)=4.04, p < .001$)과 대출을 받아서 남편을 돕는 것($t(128)=5.37, p < .001$)이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들을 의사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밑에서 적성에 맞지 않는 의사 대신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아들의 고민을 다룬 상황(표 5 참조)에서, 대학생과 노인 모두 아버지에게 원인이 더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임신한 여대생 상황에서와 같이 이 상황에서도 대학생은 노인에 비해 아들과 아버지 모두 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t(128)=2.29, p < .05, t(128)=3.27, p < .01$). 주인공

에 대한 정서반응에서도 대학생은 노인에 비해 아들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가 더 많을 것이라 판단하였다($t(128)=3.06, p<.01$).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연기를 하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바람인 의사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에 비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방안($t(128)=3.14, p<.01$), 연기자와 의사 두 가지를 모두 하는 방안($t(128)=7.14, p<.01$), 그리고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고 연기를 계속하는 방안($t(128)=2.93, p<.01$)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노인들은 대학생에 비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의사를 하는 방안이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t(128)=-2.48, p<.05$).

끝으로, 부정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하였으나 막내딸의 결혼식이 걱정되는 남편의 상황에서 대학생과 노인의 판단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을 보면, 다른 세 상황과는 달리 이 상황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 대학생과 노인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노인에 비해 바람피운 아내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반응은 더 많을 것이라 판단하였다($t(128)=3.39, p<.01$).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노인에 비해 대학생은 딸에게 이혼 사실을 말하고 의논해본다는 방안($t(128)=4.76, p<.001$)과 부모의 이혼과 자식의 결혼은 별개이므로 모두에게 솔직히 말하는 방안($t(128)=4.93, p<.001$)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대학생에 비해 노인은 딸의 결혼식 때까지 일단은 숨긴다는 방안($t(128)=-5.32, p<.001$), 아내의 부정을 용서하고 이혼을 취소하는 방안($t(128)=-3.44, p<.01$)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대학생의 반응과 차이를 보였다.

표 6. 상황 4에 대한 문제 원인, 정서 반응, 해결 방안 판단 차이

	대학생 (N=74)	노인 (N=56)	t
문제의 원인			
남편	5.53(2.02)	4.71(2.79)	1.93
아내	7.54(1.68)	7.29(2.48)	.66
부정적 정서반응			
남편	4.92(2.41)	4.75(3.25)	.33
아내	5.53(2.62)	3.96(2.58)	3.39**
각 방안들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판단 차이			
이혼사실 알림	5.95(2.42)	3.80(2.68)	4.76***
결혼식까지 숨기기	3.18(2.00)	6.25(3.97)	-5.32***
용서하기	6.01(2.45)	7.80(3.26)	-3.44**
솔직히 말함	6.55(2.12)	3.89(3.58)	4.93***
이혼에 대해 재숙고	6.88(2.30)	7.79(3.16)	-1.82
아내와 의논	6.14(2.22)	5.95(3.31)	.37

** $p<.01$, *** $p<.001$

지혜, 개방성 및 자기초월 간의 관계

지혜와 개방성, 자기초월 및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대학생집단과 노인 집단을 구분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상관관계를 보면 (표 7참조), 대학생들의 지혜 정도는 자기초월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43, p<.01$),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초월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6, p<.05$). 자기초월은 모든 지혜 하위요인들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개방성은 자기초월을 제외하고는 다른

표 7. 대학생의 지혜, 개방성, 자기초월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지혜(전체)											
2. 인지적역량(지혜하위요인)	.81**										
3. 절제와균형(지혜하위요인)	.71**	.32**									
4. 긍정적인생태도(지혜하위요인)	.77**	.56**	.34**								
5. 공감적대인관계(지혜하위요인)	.46**	.06	.39**	.25*							
6. 개방성	.13	.12	-.04	.19	.11						
7. 자기초월	.43**	.23*	.44**	.29*	.33**	.26*					
8. 성별	.26*	.28*	-.11	-.16	-.12	-.11	-.06				
9. 연령	.33**	.22	.29*	.24*	.19	-.11	.08	-.26*			
10. 경제	.15	.08	.13	.21	-.04	-.17	.10	.27*	-.09		
11. 건강	.17	.19	.18	.07	-.06	.01	.08	.00	.14	.32**	

* $p < .05$, ** $p < .01$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은 주관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5점 척도 상에서 측정된 것임.

표 8. 노인의 지혜, 개방성, 자기초월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지혜(전체)											
2. 인지적역량(지혜하위요인)	.94**										
3. 절제와균형(지혜하위요인)	.80**	.60**									
4. 긍정적인생태도(지혜하위요인)	.82**	.74**	.47**								
5. 공감적대인관계(지혜하위요인)	.69**	.50**	.75**	.39**							
6. 개방성	.42**	.39**	.24	.49**	.23						
7. 자기초월	.55**	.46**	.52**	.47**	.41**	.16					
8. 성별	.15	.05	.29*	-.01	.36**	-.10	.02				
9. 연령	-.08	-.15	.08	-.14	.08	-.13	-.01	.02			
10. 경제	.16	.19	.03	.30*	-.13	.10	.16	-.13	-.09		
11. 건강	.02	.08	-.19	.20	-.19	.36**	-.02	-.20	-.05	.43**	

* $p < .05$, ** $p < .01$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은 주관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5점 척도 상에서 측정된 것임.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집단의 경우에는(표 8참조), 지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r = .42$, $p < .01$)과 자기초월($r = .55$, $p < .01$)이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노인의 자기초월은 지혜의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개방성은 인지적 역량 요인($r = .39$,

$p < .01$), 긍정적 인생태도 요인($r = .49$,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학생과 노인집단에서 지혜, 개방성, 자기초월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표 7, 표 8참조), 노인들에게 있어 지혜점수는 노인의 연령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

으나 대학생은 지혜점수와 연령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33, p<.01$). 즉, 대학생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지혜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노인 모두 주관적으로 보고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보고한 건강수준도 높았다(대학생: $r=.32, p<.01$, 노인: $r=.43, p<.01$).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높은 것은 노인에게서만 나타났다($r=.36, p<.01$).

논 의

본 연구는 지혜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지혜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지혜 점수의 차이에 따라 삶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른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성으로 거론되는 개방성과 자기초월과 지혜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지혜가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인의 지혜를 재는 척도를 사용하여(김민희, 2008) 대학생집단과 노인집단이 지혜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노인이 대학생보다 지혜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혜의 네 가지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은 지혜의 하위요인 중 절제와 균형 요인에서 대학생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김민희(2008)의 연구에서 청년집단이 중년이나 노년집단보다 절제와 균형 요인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지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제안되고 있는 자기초월 정도에서도 노인은 대학생보다 자기초월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찰과 문제해결 능력을 나타내는 인지적 역량, 삶에서의 절제와 균

형, 긍정적 인생태도, 및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나타내는 공감적 인간관계에서 노인이 대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아울러 세상의 사람이나 소유물에 의해 덜 영향을 받고 화도 덜 내며,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자기초월 점수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동양 문화권에서 자기초월을 지혜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Le(2004)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타인을 향한 돌봄과 연민, 관심이 확장되는 것이 노년기의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권유경, 1996; 김민희, 2008; 성기월 등, 2010; 이수림, 조성호, 2007; Baltes, et al., 1992; Levenson, et al., 2005; Orwoll & Perlmutter, 1990).

노인이 대학생보다 지혜점수가 더 높고, 자기초월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는 지혜의 발달은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나이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지지해준다(Ardelt, 2000; Baltes & Smith, 1990; Holliday & Chandler, 1986; Kekes, 1983). Erikson(1959)이나 Jung(1953)이 성인기 발달의 후반부에서 지혜 개념을 논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와 지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점은 대학생의 상관 자료에서는 대학생의 연령이 지혜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노인의 상관 자료에서는 노인의 연령과 지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노년기에는 지혜가 안정되어 있어(김민희, 2008) 연령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젊은 대학생에게서 연령은 곧 다양한 경험의 누적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학생 집단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더 지혜롭다는 사실은 15세에서 25세 사이가 지혜 획득의 주요 기간이라는 주장(Pasupathi, Staudinger, & Baltes, 1999)을 지지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혜의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 삶의 여러 딜레마 상황에서 그 원인을 어디에 두며, 어떤 것을 더 좋은 해결 방안으로 판단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실생활의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라면(Clayton, 1982; Dittmann-Kohli & Baltes, 1990; Dixon & Baltes, 1986; Kekes, 1983), 지혜가 높게 나타난 노인집단과 대학생집단의 판단은 다를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네 가지 딜레마 상황 중 임신한 여대생과 그 남자친구(상황 1), 부도를 낸 남편과 이를 돕고자 고민하는 아내(상황 2), 연기가 하고 싶은 아들과 자식이 의사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상황 3)에서 노인들이 대학생에 비해 주인공에게 문제의 원인을 더 적게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이 대학생에 비해 해당 문제로 인해 주인공이 느낄 부정적 정서도 더 적다고 응답하였다. 지혜점수가 높았던 노인집단에서 해당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더 적게 부여하는 것은 선행 연구자들이 지적한 지혜의 기능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 넓은 맥락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Kramer(1990)의 주장에 따르면, 지혜점수가 높은 노인들이 갈등상황에서 인물들에게 그 탓을 덜 돌리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에 비해 노인들이 상황 속 인물들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더 적게 보고한 것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든 긍정적인 정서든 정서반응을 적게 나타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Kunzmann & Baltes, 2003).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노인과 대학생은 서로 다르게 응답하였다. 지혜점수가 높은 노인집단은 ‘부모님께 조언 구하기’,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여 해결하기’ 등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안이 사태를 해결

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학생 집단은 ‘낙태나 입양, 가계처분, 솔직한 의견표명’ 등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보다 직접적인 방안이 사태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지혜가 삶의 딜레마 상황에서 타인을 고려한 판단을 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혜가 자기중심적 사고와 감정을 넘어 타인과 세계에 대한 통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입장(Orwoll & Perlmutter, 1990)과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얻어진 노인과 대학生の 응답에 연령이 다른 두 세대의 가치관이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세대에 따른 가치관과 지혜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혜의 기능에 대한 탐색은 대학생과 노인의 지혜,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자기초월 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인의 자료에서는 지혜는 자기초월뿐만 아니라 개방성과도 정적 상관을 보여줌으로써, 지혜를 잘 예측하는 성격요인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acelar, 1998; Lyster, 1996; Staudinger, Lopez, & Baltes, 1997). 그러나 본 연구의 대학생 자료에서 지혜는 자기초월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개방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의 개방성과 지혜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젊은이들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지혜와 관련된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김민희(2008)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민희(2008)가 사용했던 개방성 측정도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방성 측정도구가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김민희(2008)가 사용한 도구는 유태용, 김명언, 그리고 이도형(1997)이 개발한 검사로, 개방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상상력과 지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sta와 McCrae(1992)의 개방성 문항은 상상력과 지식 이외에 심미적인 요소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지혜와 성격요인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살핀 연구는 김민희(2008)의 연구가 유일한데,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연령대를 대상으로 지혜와 성격요인 간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과 노인 모두 주관적으로 보고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수준도 높아 경제적 조건이 지각된 건강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관계에서는 대학생과 노인 간에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개방성과 주관적 건강 간에 관련이 없었으나 노인의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신이 더 건강하다고 지각하였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대학생에게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주관적 건강과의 상관이 미약하겠지만,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개방성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혜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Ardelt, 2004; Baltes & Smith, 1990, Clayton & Birren, 1980; Kramer, 1990; Labouvie-Vief, 1990; Pascual-Leone, 1990), 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혜를 경험적으로 접근해 그 유용한 기능을 탐색해본 작은 시도이다. 대학생보다 지혜 점수가 높았던 노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개인의 책임 탓으로 덜 돌리고 상황적인 요소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함께 고

려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혜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초월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토대로, 지혜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더 나아가 세상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혜가 있으면 삶이 만족스럽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Ardelt, 1997, 2000),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려면, 자신의 남은 생이 적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는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들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로만 향해있는 관심과 초점을 깨닫고 그 초점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게로, 더 나아가 세상과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갖는다면 '지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후속 연구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노인 모두의 지혜를 측정하기 위해 김민희(2008)의 '한국인 지혜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노인이 응답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와 같은 문항은 대학생에게는 적합하나 노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다. 노인의 지혜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노인용 지혜척도(성기일 등, 2010)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령과 무관한 지혜척도가 바람직할지 연령한정적 지혜척도가 더 적합할지에 관한 논의는 더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령집단에서 지혜의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지혜의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노년기 지혜 형성의 시점이 될 수 있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중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지혜 발달을 살피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삶의 딜레마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측정하고자 한다면 지혜로운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딜레마 상황은 15여 년 전 Kwon의 연구(1995)가 수행될 당시의 신문과 잡지에서 선별된 상황으로, 결혼 전에 임신한 여대생의 상황, 부도난 남편을 도울지 고민하는 아내의 상황의 경우 인습적인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이다. 실제 삶에서 지혜와 관련된 혹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 상황들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문헌들을 참고하여 보다 적절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적어(대학생 74명, 노인 56명) 대학생과 노인 집단에서 지혜점수의 상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기가 힘들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연령에서 지혜점수가 높고 낮은 집단을 선정하여 연령과 지혜 정도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지혜정도를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하였다. 지혜로운 행동이나 판단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지혜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타인에게도 평정하게 하여 자기보고와 타인보고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권유경 (1996). 삼세대간 지혜와 지능의 발달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1-19.
- 김민희 (2008). 한국인의 지혜 개념 탐색과 중노년기 삶에서 지혜의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기월, 이신영, 박종한 (2010). “한국노인의 지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0(1), 65-80.
- 안창규, 채준호 (1997). NEO-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443-473.
-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 5요인 성격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1), 85-102.
- 이수림, 조성호 (2007). 나이듦과 지혜: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65-87.
- Ardelt, M. (1997).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52, 15-27.
- Ardelt, M. (2000). Antecedents and effects of wisdom in old ag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aging well. *Research on Aging*, 22, 360-394.
- Ardelt, M. (2003).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Research on Aging*, 25, 275-324.
- Ardelt, M. (2004). Wisdom as expert knowledge system: A critical review of a contemporary operationalization of an ancient concept. *Human Development*, 47, 257-285.
- Aspinwall, L. G., & Staudinger, U. M. (2003). A psychology of human strengths: Some central issues of an emerging field. In L. G. Aspinwall & U. M. Staudinger (Eds.), *A psychology of human strengths: Fundamental ques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a positive psychology* (pp. 9-22). Washington, DC: APA Books.
- Assmann, A. (1994). Wholesome knowledge: Concept of wisdom in an historical and

-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D. L. Featherman, R. M. Lerner, & M. Perlmutte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12, pp. 186-224). Hillsdale, NJ: Erlbaum.
- Bacelar, W. T. (1998). Age differences in adult cognitive complexity: The role of life experiences and personality.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J.
- Baltes, P. B., Dittmann-Kohli, F., & Dixon, R. A. (1984). New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 adulthood: Toward a dual-process conception and a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O. G. Brim J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6, pp. 33-76). New York: Academic Press.
- Baltes, P. B. & Smith, J. E. (1990). Toward a psychology of wisdom and its ontogenesis. In R. J. Sternberg(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87-1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Smith, J. E., & Staudinger, U. M. (1992). Wisdom and successful aging. In T. Sonderegger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 39, pp. 123-167).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altes, P. B. & Staudinger, U. M. (1993). The search for a psychology of wisdo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 1-6.
- Baltes, P. B. & Staudinger, U. M. (1995). Wisdom. In G. L. Maddox (Ed.), *Encyclopedia of aging*(2nd ed., pp. 971-974). New York: Springer.
- Baltes, P. B. & Staudinger, U. M. (2000). Wisdom: A metaheuristic(Pragmatic) to orchestrate mind and virtue toward excellence. *American Psychologist*, 55, 122-136.
- Carstensen, L. L. (1998). A life-span approach to social motivation. In J. Heckhausen & C.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dler, M. J., & Holliday, S. (1990). Wisdom in a postapocalyptic age. In R. J. Sternberg(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121-14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yton, V. P. (1982). Wisdom and intelligence: the nature and function of knowledge in the later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5, 315-321.
- Clayton, V. P., & Birren, J. E. (1980). The development of wisdom across the life span: A reexamination of an ancient topic. In P. B. Baltes & J. O. G.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3, pp. 103-135). New York: Academic Press.
- Costa,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NEO-FF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enny, N. W., Dew, J. R., & Kroupa, S. L. (1995). Perceptions of wisdom: What is it and who has i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 37-47.
- Dittmann-Kohli, F. & Baltes, P. B. (1990). Toward a neofunctionalist conception of adult intellectual development: wisdom as a

- prototypical case of intellectual growth. In C. Alexander & E. Langer (Eds.), *Beyond formal operations: alternative endpoints to huma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ixon, R. A., & Baltes, P. B. (1986). Toward life-span research on the functions and pragmatics of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 & R. K. Wagner (Eds.), *Practical intelligence: Origins of competence in the everyday world*(pp. 203-23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Grossmann, I., Na, J. K., Varnum, M. E. W., Park, D. C., Kitayama, S., & Nisbett, R. E. (2010). Reasoning about social conflicts improves into old age.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07(16), 7246-7250.
- Heckhausen, J., Dixon, R. A., & Baltes, P. B. (1989). Gains and losses in development throughout adulthood as perceived by different adult age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09-121.
- Helson, R., & Wink, P. (1997). Practical and transcendent wisdom: Their nature and some longitudinal finding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1), 1-15.
- Hol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s in adult competence*. Basel, Switzerland: Karger.
- Jung, C. G. (1953).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Pantheon Books.
- Kekes, J. (1983). Wisdo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0(3), 277-286.
- Kichener, K. S., & Brenner, H. (1990). Wisdom and reflective judgment: Knowing in the face of uncertainty.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212-2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mer, D. A. (1990). Conceptualizing wisdom: The primacy of affect-cognition relations.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279-31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mer, D. A. (2000). Wisdom as a classical source of human strength: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inqui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83-101.
- Kramer, D. A., Kahlbaugh, P. E., & Goldston, R. B. (1992). A measure of paradigm beliefs about the social world. *Journal of Gerontology*, 47, 180-189.
- Kunzmann, U., & Baltes, P. B. (2003). Wisdom-related knowledge: Affective, motiv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104-1119.
- Kwon (1995). *Wisdom in Korean families: Its development, correlates, and consequences for life adaptation*. Doctori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Labouvie-Vief, G. (1990). Wisdom as integrated thought: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 perspectives.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52-8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bouvie-Vief, G., DeVoe, M., & Bulka, D. (1989). Speaking about feelings: Conceptions of emotion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4*, 425-437.
- Le, T. N. (2004). *A Cross-Cultural Study of Practical and Transcendent Wisdo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Levenson, M. R., Jennings, P. A., Aldwin, C. M., & Shiraiishi, R. W. (2005). Self-transcendence: Conceptualizations and measur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0*(2), 127-143.
- Levenson, M. R., Jennings, P. A., Le, T. N., & Aldwin, C. M. (2002). *Self-transcendence: Theory and measurement*. Paper presented at the mid-winter annual meeting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Division 36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ltimore, Maryland.
- Lyster, T. L. (1996). *A nomination approach to the study of wisdom in old age*. Doctoral Dissertation, Concoria University, Montreal, Quebec, Canada.
- Meacham, J. A. (1983). Wisdom and the Context of Knowledge: knowing that one doesn't know. In D. Kuhn and J. A. Meacham (Eds.), *On the Development of developmental psychology*(pp. 111-134). Basal, Switzerland: Karger.
- Moody, H. R. (1983). *Wisdom and the search for meaning*. Paper presented at the 36th Annual Meetings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in San Francisco.
- Orwoll, L., & Perlmutter, M. (1990). The study of wise persons: Integrating a personality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160-17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scual-Leone, J. (1990). An essay on wisdom: Toward organismic processes that make it possible.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244-27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supathi, M., Staudinger, U. M., & Baltes, P. B. (1999). *The emergence of wisdom-related knowledge and judgment during adolescence*. Berlin: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 Schaie, K. W. (1977-1978). Toward a stage theory of adult cogni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 129-138.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mith, J., & Baltes, P. B. (1990). Wisdom-related knowledge: Age/cohort differences in response to life-planning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26*(3), 494-505.
- Snyder, C. R. & Lopez, S. J. (2007). Wisdom and Courage. In C. R. Snyder, & S. J. Lopez,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tific*

- and practical explorations of human strengths* (pp. 209-242).
- Staudinger, U. M. (1999). Older and wiser? Intergrating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wisdom-related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641-664.
- Staudinger, U. M., Lopez, D. F., & Baltes, P. B. (1997). The psychometric location of wisdom-related performance: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mo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1), 1200-1214.
- Staudinger, U. M., Maciel, A. G., Smith, J., & Baltes, P. B. (1998). What predicts wisdom-related performance? A first look at personality, intelligence, and facilitative experiential contex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2*, 1-17.
- Staudinger, U. M. & Pasupathi, M. (2003). Correlates of wisdom-related performance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Age-graded paths towards desirable development. *Journal for Research on Adolescence, 13*(3), 239-268.
- Staudinger, U. M., Smith, J., & Baltes, P. B. (1992). Wisdom-related knowledge in a life review task: Age differences and the role of professional specialization. *Psychology and Aging, 7*(2), 271-281.
-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07-627.
- Sternberg, R. J. (2003). *Wisdom, Intelligence, and Creativity Synthesiz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rnstam, L. (1994). Gerotranscenden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 In L. E. Thomas & S. A. Eisenhandler (Eds.), *Aging and the religious dimension*. London: Auburn House.
- Webster, J. D. (2003). An exploratory analysis of a self-assessed wisdom sca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 13-22.
-

1차 원고 접수: 2011. 04. 11

수정 원고 접수: 2011. 05. 12

최종 게재 결정: 2011. 05. 13

Exploring the Wisdom of Old People and College Students

So-yeon Park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wisdom of old people and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wisdom, openness to experience, and self-transcendence. Seventy-four college students and fifty-six old people were measured their level of wisdom on Korean Wisdom Scale(Kim, 2008). It was found that old people got higher scores than college students on four areas of the Korean Wisdom Scale, especially in 'self-control and balance' factor. Also old people showed higher scores in self-transcendence than college students. Comparing the judgments on four hypothetical life dilemma situations, old people judged the protagonists less responsible for the dilemma than college students. Old people gave more weights on concerns for other people as best solutions whereas college students more on protagonist-oriented solutions. Wisdom was related positively both to self-transcendence and to openness to experience in old people, but wisdom was related positively only to self-transcendence in college students. Limitations of this study, i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wisdom, self-transcendence, openness to experience, college students, old people

